

영남좌도의 통신사 길을 통해 본 교방춤

Gyobang Dance seen through Tonshinsa-gil of Yeongnam Jwa-do Province

양 지 선, 강 인 숙*
경상대학교 강사, 경상대학교 교수*

Yang, Ji-seon*, Kang, In-sook**
Instructor at Gyeongsang Univ.*,
Professor at Gyeongsang Univ.**

요약

영남의 좌도(左道)는 조선통신사들이 지나는 연행로에 있는 지역이다. 통신사 일행이 지나는 영남좌도의 주요 읍(邑)에서는 통신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연향(宴享)이 있었다. 연향에는 영남좌도의 교방(教坊)에 소속된 기녀(妓女)들의 교방춤이 연희되었다. 연구자는 영남좌도의 통신사 길을 따라 연행되었던 교방춤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 서론

영남(嶺南)은 경상도(慶尙道) 지역을 지칭하는 문화경계지역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영남좌도(左道)는 낙동강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선통신사들의 노정에 속한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남좌도의 큰 고을에서는 통신사들을 위한 연향(宴享)에 영남의 다양한 교방춤이 연희되었다. 그러나 현재 교방춤의 전승은 영남우도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통신사들이 여행의 일정을 기록한 『해행총재』 중에는 연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영남좌도의 통신사 길에 나타난 연향에서 기녀들을 통해 연희된 교방춤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II. 영남좌도의 통신사 길에 나타난 연향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공식적인 외교사절단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선통신사들이 국내 노정에서 이용한 통신사 길은 주로 영남좌도를 이용했다. 통신사 길 중에서 하루를 숙박하는 고을에서는 큰 연향이 있었다. 연향에는 큰 고을 소속 교방의 기녀들이 가무악(歌舞樂)을 제공했다. 통신사 연향 중에서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사연(賜宴)은 안동·영천·경주·밀양·부산에서 있었다.

용궁현(龍宮縣)은 통신사들이 조령을 지나 처음 도착하는 지역으로 이웃 고을인 함창현(咸昌縣)에서 연향에 필요한 음식과 준비를 했다. 용궁현을 지나 예천군(禮泉郡)에서도 연향이 있었고 객사 동헌(客舍東軒)이 연향 장소였다.

안동의 1624년 통신사 연향은 영호(映湖)의 배 위에서 이루어졌고, 1682년 통신사행에는 영호루(映湖樓)에서 연향이 있었다. 1711년 의성현(義城縣) 문소루(聞韶樓) 연향은 이웃 고을 청송(靑松) 기녀가 공연을 했다.

영천(永川)의 전별연에는 영천읍의 기녀는 물론 아홉 개 군의 풍물(風物)이 모두 영천에 모였다. 영천의 연향은 주로 조양각(朝陽閣)에서 이루어졌고 마상재가 자주 펼쳐졌다.

경주(慶州)에는 1624년 9월 9일과 1711년 6월 1일에 전별연이 있었다. 경주는 통신사행단 이외에도 사신이나 관리들을 위한 연향이 자주 열리는 곳이었다.

부산과 동래는 가장 많은 전별연이 있던 곳이다. 부산의 사연은 객사(客舍)에서 진행되었고 좌수사(左水使)가 주관했다. 부산 객사의 연향에는 의례를 갖추고 행해졌고, 1763년의 전별연에는 경주·동래·밀양 고을 기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번갈아 춤을 추었다.[3] 조선통신사들이 약 8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상행 길 중에는 밀양과 대구에서 연향이 있었다.

III.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

교방춤은 기녀들의 소속 관청인 교방을 통해 연희된 춤을 말한다. 영남좌도의 통신사 연향 중에 나타난 춤은 검무·황창무·처용무·천도·중춤이다.

통신사 연향에서 가장 많이 연행된 춤은 검무(劍舞)이다. 의성(義城)의 문소루(聞韶樓)에서 연행되었던 검무는 기녀 2인이 쌍검(雙劍)을 위로 던졌다가 한 손으로 받는 활달한 춤이었다.[1] 부산의 배 위에서 춘 검무는 기생 덕심(德心)이 북 치는 사람과 취수(吹手)와 더불어 춤을 추었다.

검무와는 별개의 종목으로 연행된 춤이 있는데, 바로 황창무(黃昌舞)이다. 1763년 9월 2일 동래부 관아의 상방(上房)에서 황창무가 연희되었다. 백여 명의 기생 중에 황창무를 춘 대구 기생 옥진(玉珍) 형제가 기량이 제일 우수해 일등이었다. 9월 10일 부산에서 사연이 끝나고 수사가 베푸는 사적인 연향에서도 황창무가 연희되었다. 백련(白蓮)이라는 경주 기생이 황창무를 추었다. 황창무는 황창곡(黃昌舞)이라는 악곡이 있어 이 곡에 맞추어 춤을 추었고, 칼날이 번쩍번쩍 빛나며 신선함이 있는 춤이었다.[2] 1767년 경주 객사에서 연행된 황창무는 기녀 두 명이 황창의 탈을 쓰고 전립과 군복을 착용하고 춤을 추었다.[3]

남옥(南玉)이 기록한 부산에서의 연향 내용에 세 가지 춤이 나타난다. “음악은 동경(東京)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은 세 읍의 춤을 섞었으니 황창(黃昌)·처용(處容)·천도(天桃) 등의 춤이다.”[4]라 했다.

처용무는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써 신라 경주의 ‘처용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1767년 경주 객사에서 연행된 처용무는 기녀 5인이 처용의 탈과 오방색 의상을 착용하고 차례로 등장하여 춤을 추다가 퇴장한다.

남옥이 천도(天桃)라 했던 춤에서 천도는 선계의 복숭아를 뜻하는 것으로 경주 교방에서는 반도(蟠桃)라 했다. 춤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높은 분께 반도를 헌상하는 의미를 지닌 춤이다.

중춤(僧舞)은 1763년 9월 21일 부산 객사에서 의성 기생인 윤매와 봉매가 추었다. ‘중춤’은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승무’로 통용되던 명칭이다. 승무는 극 형식의 춤극에 해당하는 내용과 홀춤 형식의 춤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의성 기생인 윤매와 봉매 2인이 춘 승무는 홀춤으로 진행되는 승무의 양식을 2인이 함께 연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763년 부산 전별연에서 어린 기생 2명이 춤을 추었는데 춤의 명칭이 기록되지 않았다. 한명은 머리에 관을 쓰고 하나는 용으로 만든 샅갓을 쓰고 가사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춤의 동작은 팔뚝을 구부리고 턱을 괴고 겨드랑이를 누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었다. [5] 이 춤의 내용과 명칭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경주 교방에서 춘 ‘무동(舞童)’이라는 춤의 복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무동은 여자 4인이 춘 춤으로 2명은 화립(花笠)을 쓰고 2명은 채관(彩冠)을 쓰고 서로 짝을 지어 대무하는 춤이다

IV. 결론

영남좌도의 통신사길 중에서 용궁현·안동·영천·경주·부산·밀양·대구 등에서 연향이 있었다. 이 중에서 부산에서의 전별연은 밀양·경주·울산 등의 기생들이 참가했고, 그 중에 경주 기녀들의 재능이 제일 뛰어났다.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은 검무·황창무·처용·천도·중춤이다. 의례를 갖춘 통신사연에서 정제적 요소

가 있는 검무와 처용무 천도 등을 추었다. 공적인 사연이 끝난 후 사적인 연향에서는 민속적인 요소가 강한 황창무와 중춤 등을 추었다.

■ 참고 문헌 ■

- [1] 임수간, 동사일기, 1711년 5월 26일.
- [2] 김인겸 저/최강현 역, 일동장유가 pp.69-71, 보고서, 2007.
- [3] 박종, 당주집, 권15, 유록, 신라십무.
- [4] 남옥 저,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pp. 214, 소명출판사, 2006.
- [5] 원중거/김경숙 역, 승사록, pp. 53, 소명출판, 2006.